

광주 찾은 윤석열 “AI 산업에 재정 아끼지 않겠다”

북구 AI데이터센터 예정지 찾아 “4차산업혁명 거점도시 조성 지원” 순천 전남선거대위 발대식 참석 민주화운동 펌해 논란 발언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호남 방문 이틀째인 23일 광주와 전남을 찾아 동서 균형발전과 지역의 벽을 뛰어넘는 국민통합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의 이번 호남 방문은 정권교체를 위해 중도·진보 진영까지 폭넓게 다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전남 전북에서는 수소경제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전북 홀대론’ 불식을 강조했다. 이날 광주에서는 광주를 대표 첨단과학도시로 키우겠다고 혁신과 실사구시를 강조했다. 하지만, 전남 전북에서의 빈곤층 무시 논란을 빚은 ‘극빈층 자유’ 발언에 이어 이날도 순천에서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면서 여전히 ‘설화’ 논란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의 AI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찾았다. 광주가 인공지능산업 중심 도시를 추진중인 가운데 윤 후보는 이 곳에서 지역 경제 발전과 미래가치를 내걸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광주, 호남 지역이 과거 산업발전에서 뒤쳐졌지만, 4차산업혁명에서는 전통적인 중공업이 아니라 AI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엄청난 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가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의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기반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어 “(지역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정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광주의 AI 산업에 재정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지역 현안인 군공항 이전,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새만금·포항 물류망 확충 등을 공약했다. 그는 특히 동서권 교통·물류망 구축 사업에 대해 ‘영호남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군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임기 내에 이 지역 주민들의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순천에서 열린 전남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호남에)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호남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지지를 안 했다”면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정권은 교체해야 되었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지지를 받는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늘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보수정당의 불모지였던 호남에서 외연 확장을 꾀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자당 저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윤 후보는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저로서는 10%든, 15%든 좋다”며 “호남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저희는 전국 선거에서 대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하는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평했다.

8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의 주축인 민주당 내 ‘586세대’를 겨냥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민주화운동 전체를 폄하한 발언으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배 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광주 북구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내 AI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대선 다자대결 이재명 35%·윤석열 29%

4개 기관 NBS 여론조사

갤럽조사 윤 35.2%·이 32.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합동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주 전인 직전 조사 때보다 3%포인트 하락한 35%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도는

7%포인트 빠진 29%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2주 전 2%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벌어졌다. 다만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에 머물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도는 6%,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였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두고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2주 전보다 2%포인트 오른 45%였다. 부정적인 평가는 3%포인트 빠진 49%였다.

대통령 후보 가족을 검증하는 문제를 두고 가족 검증이 당연하다고 본 응답은 68%, 부적절하다는 답은 28%였다.

내년 대선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과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은 42%로 동률이었다. 정권 심판론은 2주 전보다 4%포인트 빠졌지만 국정 안정론은 직전 조사에서 변함이 없었다.

한편,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에서 윤 후보 지지율은 35.2%, 이 후보 32.9%로 조사됐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7.5%,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4.7%, 김동연 새로운미래 대선 후보 1.3%로 조사됐다.

이번에 발표된 이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민주, ‘탈당자 대사면’에 지역정가 술렁

출마예정자들 “감점은 유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광주·전남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중앙당이 대선을 앞두고 여론 대통합을 통한 집투끼를 총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지역정가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과거 탈당자 대부분이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때 국민의당으로 대거 이동했던 당원들이며, 이들은 주로 호남 지역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탈당자에 대한 복당 허용에 공천과정에서의 감점까지 없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중인 일부 입지자들은 ‘그동안 당을 지켜온 이유가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다만,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지자들은 공식적으

로 반발을 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출마 예정자 A씨는 “대선을 앞두고 외연확대 차원에서 과거 탈당자에 대한 복당은 예상됐지만, 공천과정에서 감점까지 없애준다면 그동안 당을 지키며 애써온 사람들의 박탈감이 클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당은 시켜주더라도 당헌·당규에 규정한 공천과정에서의 감점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향후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복당자에 대한 페널티를 없앤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 군 사이에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현배 기자 cki@

국민의힘 관계자, 광주시장에 욕설 파문

윤석열 광주 방문 자리서

‘전두환 발언’ 사과 요구에

감정 표출 욕설 섞이면서 파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광주시장 관계자가 이홍섭 광주시장을 겨냥한 욕설을 해 말썽이 일고 있다.

23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현장 국민의힘 광주시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에서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게 “(이홍섭) 시장 ‘XX의 XX’ (전두환 발언 관련) 한번 이야기하면 됐지, 또 이야기했다”고 욕설을 섞어가며 따졌다.

이 시장이 윤 후보의 ‘전두환 공과 발언’을 강하

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국회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에도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공과’ 발언과 비교하며 또다시 문제를 삼았다.

당시에는 윤 후보가 도착하기 전이었고 국민의힘 김현장 시장위원장과 조인철 부시장은 윤 후보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조 부시장이 즉각 항의했고 주위 사람들이 제지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당시 자리에 있던 김경진·송기석 국민의힘 광주 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이후 조 부시장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시장은 “그동안 감정이 쌓여 있었더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광주시장을 상대로 욕설까지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현배 기자 cki@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